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가 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혜경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Effect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Hey K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presents basic data for helping healthy Sexual Culture.

Methods: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April 11 to April 25, 2016. of 237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SPSS 21.0 for Windows was used.

Results: As a result,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Sexual Cop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ere affected by the gender, distorted sex, have the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and accepted sex.

Conclusions: It is need to development program and counseling for establishment of the healthy sex culture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Coping Behavior, Attitude, University Student

접수일 : 2017년 1월 31일, 수정일 : 2017년 3월 9일, 채택일 : 2017년 3월 31일

교신저자 : 김혜경(01795,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Tel: 043-830-8842 Fax: 043-830-8869 E-mail: khk777@jwu.ac.kr

I. 서론

인간은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많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상호 작용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되어진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독립 뿐만 아니라 (이현주와 김혜경, 2015), 생리적, 인지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차윤경, 2009). Erikson의 인간발달이론에 의하면 후기 청소년기는 생식능력의 발달과 밀접히 연결되어있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고립의 감정을 겪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 발달과정으로의 성적발달과 성의식을 갖추는 것은 인격형성에 영향을 준다(이희영, 2007).

과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속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당했으나(조명한, 1993),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바른 인성을 키우고, 긍정적인 성지식 및 성태도 확립을 위해 성교육의 역할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관되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 피교육자의 교육요구 반영이 없는 입시위주의 선택적 교육과정에 노출되어있다(윤수경, 2016). 대학생이 되면서 성인으로서의 해방감 및 이성간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는 인터넷등을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언제 어디서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에서 시각미디어를 접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정규적 성교육이 아닌 마스크, 음란비디오나 친구를 통해 성지식을 얻었다고 나타난다(이영희와 송미숙, 1997; 최승애 등, 2006). 이는 순결과 정절을 중시했던 유교적인 윤리관에 바탕을 둔 한국사회에서 자손번창의 이유 외 성에 대한 관심은 금기로 여겨왔으며,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로 남녀를 엄격히 구분할 뿐 올바른 성을 가르치는

데 소홀했던(최경숙, 2002)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초래된 자신과 사회의 성윤리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 그리고 성폭력, 성범죄, 성상품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업적이고 도구화된 성적 정보 및 자극은 잘못된 성가치관이 정립되어 무책임한 성행동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8년 2월 발생했던 여학생 대상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본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강요하면서 집단 성폭력으로 번졌고(한겨레, 2008). 2011년에도 의대생 3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함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것처럼 이 같은 사전 성교육 부재는 청소년기 성정체감 확립과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이희영, 2007). 한국에 비해 성행동이 높은 미국은(우남식, 2005) 1988년 이후 학교와 가정의 체계적 성교육에 의해 혼전 성관계와 이혼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1). 이에 반해 한국 청소년의 혼전 성관계는 2005년 4.8%, 2007년 5.2%, 2009년 5.1%, 2013년 5.3%로 나타났으며(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6), 우리나라 미혼모의 실태조사에서도 1997년 6.9%, 2000년 9.6%, 2005년 28.8%로 계속 증가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05).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인간의 가장 필요한 요소이자 기본 권리이며, 삶의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부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이미라, 2009). 하지만 은폐되어진 채 음성화 된 성은 음란매체 등을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습득된 불확실한 정보나 무지는 성을 왜곡시킴으로써 건강한 성태도 및 성문화 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강효운, 2007),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 무책임한 성행동을 하기 쉽다.

성지식이 높고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행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이인숙과 문정순, 2000), 정확

한 성 지식은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며 책임감 있는 성행동의 중요한 요소(김진희와 김정신, 2008)임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성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성 지식의 증가로 긍정적인 성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연구되었다(나임순, 2006). 따라서 긍정적인 성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지식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대처행동에 성 지식과 성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 지식 및 성태도가 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11일부터 25일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주었다. 연구를 허락한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대비하여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5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중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3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Faul, Erdfelder, Buchner와 Lang(2009)이 개발한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 1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237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독립변수인 성 지식과 성태도(윤리적인 성, 허용된 성, 왜곡된 성) 종속변수인 성대처행동(성 표현적 대처유형, 성 통제적 대처유형) 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된 성태도 및 성대처행동의 척도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보건학 교수 1인 총 3인의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1) 일반적 특성 및 개인 성격험유무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에 포함된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전공 및 종교유무이며 이성과의 교제경험유무와 성격험 유무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2) 성 지식

성 지식 척도는 광노진(2001)의 척도를 수정 개발한 한은숙(201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들에 대해서 ‘예’, ‘아니오’의 이분법 질문지로 역문 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했다. 이에 신뢰도 조사법인 Chronbach' alpha 검사가 적합하지 않아 값을 제시하지 않았다(황해익 등, 2008).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성태도

성태도 척도는 배성미(1997)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윤리적인 성 3문항, 허용된 성 2문항, 왜곡된 성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평가하였고, 반대 질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되고 비윤리적이며 허용된 성 태도를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0이었다.

3) 성대처행동

성대처행동 측정을 위해 박영숙, 전영민(2002)의 연구를 나임순(2006)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 표현적 대처유형 8문항, 성 통제적 대처유형 7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표현성과 성적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는 0.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6이었다.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가 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1.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개인 성격험유무는 기

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개인 성격험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개인 성격험유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개인 성격험유무는 <표 1>과 같다. 237명의 대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43.5%, 여학생이 56.5%였고, 평균연령은 20.53세며 1학년이 69.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2.8%, 이공계열 11.0%, 예체능계열 7.6%이고 의료보건계열은 58.6%였다. 종교는 있음이 35.0%, 없음이 65.0%였고, 교체경험이 있음은 75.9%, 없음은 24.1%이며 성격험을 가지고 있음은 27.8% 없음은 72.2%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및 개인 성격험 유무

(N=237)		
	구분	n(%)
성별	남자	103(43.5)
	여자	134(56.5)
학년 (평균연령 20.53)	1학년	165(69.6)
	2학년	60(25.3)

	구분	n(%)
	3학년	5(2.1)
	4학년	7(3.0)
종교유무	있다	83(35.0)
	없다	154(65.0)
전공	인문사회	54(22.8)
	이공계	26(11.0)
	예체능	18(7.6)
	의료보건	139(58.6)
교제경험유무	있음	180(75.9)
	없음	57(24.1)
성경험유무	있음	66(27.8)
	없음	171(72.2)

2.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대처행동의 정도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대처행동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학생의 성지식은 20점을 만점으로 평균 15.71±2.24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1점 만점으로 0.79±0.11점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5점

을 만점으로 평균 2.87±0.41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에는 허용된 성이 3.81±0.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윤리적인 성은 3.67±0.75, 왜곡된 성 2.01±0.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대처행동은 5점을 만점으로 평균 2.21±0.65점, 하위요인은 성 표현적 대처 2.31±0.74점, 성 통제적 대처 2.09±0.8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대처행동의 정도

구분	전체항목 평균±표준편차	개별항목 평균±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s alpha)
성지식	15.71±2.24	0.79±0.11	
성태도	28.68±4.07	2.87±0.41	
윤리적인 성	11.02±2.26	3.67±0.75	.703
허용된 성	7.61±1.53	3.81±0.77	
왜곡된 성	10.05±2.71	2.01±0.54	
성대처행동	33.16±9.77	2.21±0.65	
성표현적 대처유형	18.51±5.92	2.31±0.74	.862
성통제적 대처유형	14.65±5.65	2.09±0.8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표 3>. 대학생의 성지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학년과 전공, 교제경험과 성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태도는 남성(3.03±0.43)이 여성(2.74±0.35)보다 높았으며(t=5.72, p<0.001), 성경험이 있음(2.98±0.48)이 없음(2.82±0.37)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생의 종교유무와 학년, 전공과 교제경험에

다른 성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대처행동은 남성(2.57±0.53)이 여성(1.93±0.60)보다 높았으며(t=8.64, 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제경험이 있음(2.27±0.66)은 없음(2.04±0.59)보다 높았고(t=2.30, p=0.022), 성경험이 있음(2.53±0.58)은 없음(2.09±0.64)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생의 전공은 이공계열(2.37±0.7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사회계열(2.35±0.51), 예체능계열(2.34±0.78), 의료보건계열(2.11±0.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2.69, p=0.047)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구분이 되지 않았다. 종교유무와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의 차이

(N=237)

구분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평균±표준편차	t/F(p)	평균±표준편차	t/F(p)	평균±표준편차	t/F(p)	
성별	남자	0.78±0.12	-0.50	3.03±0.43	5.72	2.57±0.53	8.64
	여자	0.79±0.10	(0.622)	2.74±0.35	(<0.001)	1.93±0.60	(<0.001)
종교	있다	0.80±0.12	1.57	2.86±0.40	-.19	2.25±0.66	0.69
	없다	0.78±0.11	(0.117)	2.87±0.41	(0.848)	2.19±0.65	(0.493)
학년	1학년	0.78±0.11		2.84±0.37		2.23±0.65	
	2학년	0.80±0.12	1.91	2.90±0.49	2.37	2.12±0.69	1.18
	3학년	0.69±0.09	(0.129)	3.24±0.47	(0.071)	2.51±0.47	(0.319)
	4학년	0.81±0.08		3.06±0.24		2.48±0.34	
전공	인문사회	0.79±0.08		2.88±0.38		2.35±0.51	
	이공계	0.76±0.12	1.03	2.94±0.44	0.72	2.37±0.70	2.69
	예체능	0.82±0.12	(0.382)	2.94±0.48	(0.540)	2.34±0.78	(0.047)
	의료보건	0.79±0.12		2.84±0.40		2.11±0.66	
교제경험	있음	0.78±0.12	-.63	2.89±0.44	1.46	2.27±0.66	2.30
	없음	0.79±0.10	(0.527)	2.80±0.27	(0.146)	2.04±0.59	(0.022)
성경험	있음	0.77±0.14	-.97	2.98±0.48	2.78	2.53±0.58	4.88
	없음	0.79±0.10	(0.331)	2.82±0.37	(0.006)	2.09±0.64	(<0.001)

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대처행동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4>. 대학생의 성태도는 성대처행동($r=0.405$, $p<0.001$)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r(p)	
	성지식	성태도
성지식		0.053(0.415)
성대처행동	-0.016(0.808)	0.405(<0.001)

(N=237)

5. 대학생의 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대학생의 성표현적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입(Enter)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5>.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전공, 교제경험 및 성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성태도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전공은 예체능계열을 교제경험은 없음을 그리고 성경험은 없음을 준거변수로 가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807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0~0.079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259~0.939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0.259~0.939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성태도, 성별, 전공, 교제경험, 성경험을 예측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성대처행동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63$,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text{adj. } R^2)=0.38(0.36)$ 로 회귀모형은 성대처행동 총 변화량의 38%를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의 성표현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성표현적 대처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성별($B=0.37$, $p<0.001$), 허용된 성($B=0.27$, $p<0.001$), 왜곡된 성($B=0.19$, $p<0.001$), 성경험이 있음($B=0.18$, $p=0.002$), 교제경험이 있음($B=0.12$, $p=0.032$), 윤리적인 성($B=-0.15$, $p=0.009$)순이었다.

<표 5> 성표현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B	SE	β	t	p
상수		7.81	2.63		2.97	0.003
성별	여성					
	남성	3.91	0.74	0.33	5.26	<0.001
전공	예체능					
	인문사회	-0.57	1.31	-0.04	-0.44	0.664
	이공계	-1.33	1.49	-0.07	-0.90	0.371
	의료보건	-0.56	1.23	-0.05	-0.46	0.65
교제 경험	없음					
	있음	1.61	0.75	0.12	2.16	0.032
성 경험	없음					
	있음	2.36	0.77	0.18	3.08	0.002
성 태도	윤리적인 성	-0.38	0.15	-0.15	-2.63	0.009
	왜곡된 성	0.41	0.12	0.19	3.38	0.001
	허용된 성	1.03	0.21	0.27	4.97	<0.001
		$R^2=0.38$				
		Adj. $R^2=0.36$				
		F(p)=15.63(<0.001)				

대학생의 성통제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입(Enter)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6>.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전공, 교제경험 및 성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성태도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전공은 예체능계열을 교제경험은 없음을 그리고 성경험은 없음을 준거변수로 가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2.045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0~0.118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1.065~3.858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65~3.858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성태도, 성별, 전공, 교제경험, 성경험을 예측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성대처행동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1,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adj. R^2)=0.23(0.20)로 회귀모형은 성대처행동 총 변화량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의 성통제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성표현적 대처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성별(B=0.32, $p<0.001$), 윤리적인 성(B=0.22, $p<0.001$), 왜곡된 성(B=0.13 $p=0.038$)순이었다.

<표 6> 성통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37)				
	구분	B	SE	β	t	p
	상수	3.04	2.81		1.08	0.281
성별	여성					
	남성	3.68	0.79	0.32	4.63	<0.001
전공	예체능					
	인문사회	0.99	1.40	0.07	0.71	0.481
	이공계	0.71	1.59	0.04	0.45	0.654
	의료보건	1.21	1.21	0.11	0.92	0.357
교제 경험	없음					
	있음	-0.07	0.80	-0.01	-0.08	0.935
성 경험	없음					
	있음	0.45	0.82	0.04	0.55	0.59
성 태도	윤리적인 성	0.56	0.16	0.22	3.60	<0.001
	왜곡된 성	0.27	0.13	0.13	2.08	0.038
	허용된 성	0.01	0.22	0.00	0.04	0.968
		$R^2=0.23$				
		Adj. $R^2=0.20$				
		$F(p)=7.41(<0.001)$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과 충청지역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23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 지식은 20점 만점에 15.71점이었다. 이는 평균 18.63점의 한은숙(2014)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점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성경험유무에 따른 성지식은 성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성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강윤선(2016)과 황인명(2009)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차윤경(2009)의 연구와 이인숙과 전미양(2000)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또한 의료보건계열 전공 대학생이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성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체능 전공 대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황인명(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성태도는 본 연구에서는 평균 2.87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의 순위는 허용된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윤리적인 성, 왜곡된 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되고 비윤리적이며

허용된 성태도를 의미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강운선(2016)과 배성미(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성적 허용성에 대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엄격한 시각이 적용되는(김영기, 2011) 우리 사회에 잠재된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허용된 성태도를 지닌 경우 성지식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박효정과 강숙정, 2013)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성교제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지식이 가장 높았던 예체능 전공 대학생이 성태도 점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성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대처행동은 본 연구에서는 평균 2.21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의 순위는 성표현적 대처유형이 성통제적 대처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대처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표현성과 성적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배성미, 2002)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공계 전공 대학생이 타 전공 대학생들보다 높았다. 이성교제경험과 성경험이 있는 경우 성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성표현적 대처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성별, 허용된 성, 왜곡된 성, 성경험이 있음, 교제경험이 있음, 윤리적인 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간에는 남자의 경우 허용되고 왜곡된 성태도가 높고 성경험과 교제경험 있음이 성표현적 대처행동과 더 높은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성경험이 많을수록 성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배성미(2002)와 박성정(1997)의 연구와 일치하며, 교제 경험이 성행동에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했으며(Smith와 Udry, 1986),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4.8배 높게 개방적인 성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손애리와 천성수(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성통제적 대처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성별, 윤리적인 성, 왜곡된 성의 순이었다. 이는 성태도와 성지식, 성대처행동에 관한 남녀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였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영희 등, 2013; 김은만 등, 2013). 남녀의 교제를 통해 이성간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심리적,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삶에 있어 바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남현미, 2003). 하지만 우리 사회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응낙을 받아내기 위해 심리적인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왜곡된 성태도에 건전한 개방이 아닌 통제의 대처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 내용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과 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뿐이었다고 할 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제작, 지도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프로그램으로 성지식을 얻은 경우 올바른 성행위의 정도가 높았으므로(강운선, 2016)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습득과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별에 차이를 둔 특성화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태도와 성대처행동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성표현적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허용된 성, 왜곡된 성, 성경험이 있음, 교제경험이 있음, 윤리적인 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8%였다. 성통제적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허용된 성, 왜곡된 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3%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이 정확한 성지식과 건강하고 건전한 성태도 확립을 위해 성별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며, 책임감 있고 올바른 성대처행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성대처행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성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태도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학생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태도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운선.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 및 생식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영주: 동양대학교 대학원, 2016.
2. 강효운. 일부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특성과 성경험 예측요인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성공회대학교 2007
3. 광노진. 정신장애인의 성의식, 성생활, 성지식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4.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13;19(3):166-175.
5. 김은만, 유수정, 송미령. 대학생의 음란물 노출력과 성태도 및 성경험 간의 상관성 분석. 기본간호학회지 2013;12(4):1935-1950.
6. 김영기. 성 이중기준, 성 주체성, 성 의미가 대학생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명지대학교, 2011.
7. 김진희, 김경신. 대학생의 성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2008; 13(1):123-138.
9. 나입순. 노인의 성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006;26(3):547-563.
10. 남현미. 대학생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2003.
12. 박성정.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허용,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울산: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13. 박영숙, 전영민. 고등학생용 성심리 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2002;21(4):891-909.
14. 박주희. 고담대구시 초등학교 일상적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100명 넘어 한겨레신문 2008년 4월 30일자.
15. 박효정, 강숙정.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그 현황과 성지식, 성태도와의 상관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3;27(3):608-618.
16. 배성미.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7. 손애리, 천성수.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한국보건사회학회지 2005;18:73-100.
18. 이미라. 노인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따른 성대처행동의 관계연구-부산지역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9.
19. 이인숙, 전미양.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 2000;14(2):382-395.
20. 이인숙, 문정순. 기혼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한국보건간호학회지2000;14(2):396-414.
21. 이영희, 송미숙.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7;27(1):26-31.
22. 이희영. 한,중,일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 비교분석[박사학위논문]. 춘천: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23. 이현주, 김혜경. 대학생의 SNS 중독 및 대학생 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5;16(6):3944-3953.
24.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2005.
25. 우남식. 한,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 동 및 성교육에 대한 비교연구[박사학위논문]. 인천:인하대학교 대학원, 2005.
26. 윤수경.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2016.
27. 조명환. 청소년 문화 정서지표 조사연구.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28. 최경숙.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관계[석사 학위논문]. 수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9. 최승애 외. 한동대 실태조사. 한동대학교 학생 생활상담센터 2006;4:37-95.
30. 차윤경.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가 성대처행 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포항:한동대 학교 상담대학원, 2009.
3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집. 세종시:교 육부, 2016.
32. 한은숙. 간호사의 성지식, 성태도, 의사소통기 술이 성상담 장애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 문]. 서울:동국대학교 간호학과, 2014.
33. 한상훈.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3명 모두 실 형선고“죄질 무겁다” 뉴스Win 2011년 10월 01 일자.
34. 황인명. 중,고,대학생들의 성지식, 성적 자율성, 성태도 및 미혼모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석사 학위논문]. 대전:을지대학교 대학원, 2009.
35. 황혜익 등. SPSS 자료분석. 창지사, 2008.
37.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Practices among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s. 1998 and 1995, 2001.
38.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41:1149-1160.
39. Smith, E. A, & Udry, J. R. Coital and non-coital sexual behaviors of white and black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Public Health* 1985;75:1200-1203.